

대전-진주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

서부경남 및 대전(충청)권 공동발전방안

일시 : 2002년 12월 9일(월) 13:30~17:30
장소 : 대전광역시청 세미나실 (3층)
주최 : 대전발전연구원 · 경남발전연구원

찾아오시는길



영사문의

대전발전연구원 (042-471-5620, 471-5621)
경남발전연구원 (055-266-2076, 261-4439)

초 | 대 | 의 | 글

안녕하십니까!

우리나라는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형성하기 위해 고속도로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. 특히 지난 11월 21일 대전-충청고속도로의 대전~진주구간이 개통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.

대전-충청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서부경남은 지리상을 비롯한 높은 산들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었을 뿐 아니라 대전(충청)권과의 교류가 처음으로 인해 오랜 나후지역으로서 인식되어왔지만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대전(충청)권을 비롯한 인접 시·도간 교류활성화로 지역발전의 대전환점을 맞이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

대전-진주간 고속도로 개통은 인접 시·도간 물류, 연광, 산업입지 개선 등 다양한면에서 기대효과라는 물론 인구유출, 삼권이동 등 역효과가 수반됩니다.

이에 따라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동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지역발전 및 국도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.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서부경남 및 대전(충청)권의 공동발전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마르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의견을 함께 나누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2002년 12월

대전발전연구원장 **한인동** 경남발전연구원장 **성대현**

진 | 행 | 순 | 서

- 13:30-14:00 **등록**
- 14:00-14:30 **개회식**
 - 국민의례
 - 개최사 : 한인동 (대전발전연구원장)
 - 환영사 : 임홍철 (대전광역시장)
 - 축사 : 이은규 (대전광역시외의장)
- 14:30-15:30 **제1주제**
대전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관련지역의 발전전략
 - 사회자 : 고현욱 (경남대 대학원장)
 - 주제발표 : 신동호 (한남대 교수)
 - 토론자 : 김해천 (북한대 교수)
 - 임성복 (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)
 - 곽태열 (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)
- 15:30-15:40 **휴식**
- 15:40-16:40 **제2주제**
대전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관련산업의 전망과 과제
 - 사회자 : 정강환 (여해대 교수)
 - 주제발표 : 고원규 (진주국채대 교수)
 - 토론자 : 장인식 (우주정보대 교수)
 - 문태천 (경상대 교수)
 - 김현도 (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)
- 16:40-17:30 **공동도론 및 청중질의응답**
 - 사회자 : 성태현 (경남발전연구원장)
 - 토론자 : 고현욱 (경남대 대학원장)
 - 신동호 (한남대 교수)
 - 정강환 (여해대 교수)
 - 고원규 (진주국채대 교수)